

# 자손만대까지 길이 살고 싶은 도시로!



## 김 동 일 | 보령시장

1949년 충남 보령 출생

동아인재대학교 졸업

보령시 총무국장 명예퇴직

제8대 충남도의회 의원

현 새누리당 충남도장 부위원장

2014년 민선 6기 보령시장

### ▲ 당선소감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많은 사랑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신 11만 보령시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저를 당선시켜 주신 보령시민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보령발전에 대한 목마름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지금 보령시는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시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가슴에 새기면서 보령을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 나누어진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보령시민께 약속드린 것과 같이 실천하는 시장으로 낙후된 보령을 발전시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모든 시민이 감동하는 당당한 보령의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시장, 야당까지 포용하는 통합시장,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시장이 되겠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 보령시의 현안과제를 꼽으라면...

우선, 선거기간동안 나누어진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여 당당한 보령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기초를 만들어가겠다.

첫째, 우리 보령시의 발목을 잡고 있던 보령신항 건설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우선, 2015년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어 앞으로 보령신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충남에서 가장 낙후된 도로여건을 가진 곳이 보령시다. 장항선 복선화 사업 추진과 더불어, 국도21호(보령~서천), 국도36호(보령~청양), 국도40호(보령~부여), 국도77호(보령~태안)의 조기 완공을 위해 힘써 노력하고, 충청선철도(보령~조치원) 건설, 동서도속도로(보령~울진)의 조기 착공에 노력하겠다.

### ▲ 역점사업 및 공약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내겠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보령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역량을 집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시장 직속의 기업유치 인·허가 총괄 TF팀을 설치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 또한 기업하기 쉬운 환경 조성하고 현재 조성중인 공단이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둘째, 막힌 도로를 시원하게 뚫겠다.

보령의 동서(보령~대전)축과 남북(태안~보령~서천)축을 연결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령시가 내의 정체구간 도로를 개선하여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셋째,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레포츠, 사계절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관광 스포츠 도시를 육성하고 차별화된 힐링 관광명소를 육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다. 또한 미래 해양 관광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넷째, 복지예산과 농 산 어촌의 예산을 확대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

사회취약계층(서민, 노인, 장애인,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도비 등 확보와 예산지원에 노력하겠다.

다섯째, 누구나 쉽게 문화생활을 누리는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다.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형 프로그램 확대와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도심, 하천, 산림자원을 하나의 녹지축으로 연결하는 생태존을 구축하겠다.

여섯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명품 행정도시를 만들겠다.

학생들의 학력신장 지원을 통한 인재육성과 평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

진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자치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

### ▲ 그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은 침체된 보령시의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것이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심지역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을 문화·관광과 접목하여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

현재 추진중인 선진일반산업단지와 청라농공단지가 조차 착공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을 닦고, 보령의 자랑인 석재산업의 발전 대책도 강구하겠다.

수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홍보지구는 대체 활용을 위한 보령신항의 배후 산업단지로써의 방안을 검토하겠다. 보령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규제 혁파와 개정에 노력하겠다.

###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본다면?

보령은 예로부터 자손만대가 이어 편히 살 수 있는 복된 땅이라 하여 萬世之保寧(만세지보령)으로 불리어 왔다.

2020년 보령시는 보령신항 건설과 함께 우량기업이 입주하여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는 곳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은 물론 수많은 유 무인도, 보령댐, 성주산, 오서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보령머드축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전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사랑하는 축제의 도시, 관광의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11만 보령시민이 다함께 노력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자손만대까지 길이 살아가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이다.

### ▲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

지난 선거기간 중 시민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분에 넘치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보령 발전을 위한 열망과 열정을 저는 가슴 속에 무겁게 새기고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틀림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동일과 함께 당당한 보령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함께 해주실 것으로 굳게 믿는다.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